

전 아사히신문 기자의 '일본 뚫어보기'

코로나에 막힌 서울·도쿄, 한국 매력 더 알리고 싶었는데...

나라키와 아야
전 아사히신문 기자



고단한 한 달이었다. 물론 나만 힘든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상을 잃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사는 나의 경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정치적인 대립에 휩싸인 느낌이다.

지난 3월 5일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입국 후 2주 격리 조치다. 국적에 상관없다고 하니 나도 당연히 그 대상자다. 다만 3월 9일부터 이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 일본 행 티켓을 예매했던 나는 아슬아슬하게 격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도쿄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나는 매일 한·일 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3월에도 '확진신고'라는 세금신고 등 몇 가지 불일도 있어서 1주일 정도 도쿄에서 지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6일 한국 정부도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중지,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취한 조치와 똑같이 한국 정부가 일본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마스크 보내 주겠다" 따뜻한 마음 느껴

나는 기존에 발급된 비자로 한국에 사는 일본인이다. 설마 3월 9일 이후 한국에 머무른다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일본에 나가 있으면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졌다. 뉴스를 유심히 봤지만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를 되풀이할 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3월 7일 예매했던 비행기는 오후 출발편이었다.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토요일이라 긴급 전화로 연결됐다. 의문점을 물어봤더니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은 없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나가면 비자 기한 내에는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해서 일본 외무성 직원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내 해석으로는 나가면 재입국은 힘들 수 있다. 일단 한국에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해 줬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는 3월 말까지 시행된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걸 보니 일본이 그만할 때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3월은 일단 한국에 남기로 했다. 그 후 한국 법무부에 전화한 결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일본인은 비자 기한 내에는 일본을 다녀올 수 있고 재입국 허가 절차는 필요 없는 걸로 확인됐다.

일본은 목요일인 3월 5일에, 한국은 금요일인 3월 6일에 발표하면서 주말을 끼고 9일부터 제한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내 주변의 한국에 사는 일본인, 또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불법체류자가 될까 봐 바로 티켓을 끊고 출국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인천공항 터미널. 한·일 양국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인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출국할 때 찍은 사진이다.

〈사진 나라키와 아야〉

과연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는 방역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일단 이동을 줄이는 게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내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 한국 지인들은 "그래도 아베 신조 총리가 먼저 발표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때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은 검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리핀을 갔다 온 다음 감기증상이 계속됐던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지만 "병원에 갔는데 검사는 못 한다"라며 그냥 못 받은 채 일하러 나갔다. SNS 등에서도 검사를 못 받았다는 사례를 여러 번 보면서 올림픽 때문에 검사를 안 하고 확진자가 적은 것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자마자 일본에선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은 한국이 더 안전해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는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평일에 못 가서 주말에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약국에 줄을 섰다. 그런데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한다. 나는 일본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일본에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병원에 갈 일은 거의 없다. 급하게 가게 되면 비싼 의료비를 낸다. 마스크도 비싸게라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것보다 외국인이 마스크를 못 사면 위험한 건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 SNS에 마스크를 못 산다는 이야기를 썼더니 여러 친구가 "보내 주겠다"고 연락을 줬다. 정부는 차가워도 사람은 따뜻하다고 느낀 일이 한두 번 아니다. 내가 한국을 못 떠나는 이유 중의

한·일 매달 왔다갔다하는 셔틀족
코로나19로 모든 일상 뒤죽박죽
일본 이어 한국도 입국제한 조치
4월 말 비자기한 만료돼 떠날 판
일본 47곳에 한국 홍보 계획 차질

하나다.

비자 기한인 4월 말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해도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5월 이후엔 못 있는다. 준비해 왔던 비자는 이 상황에서 신청해 봤자 취득하기 어려워 보였다. 급히 다른 비자를 알아봤지만 신청하려면 일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었다. 결국 4월에도 한·일 간의 입국제한 조치가 계속된다는 뉴스를 보고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려고 3월 28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텅 빈 인천국제공항. SF영화를 보는 듯했다. 티켓 카운터에서 최근 2주간 대구나 경북 지역에 안 갔는지를 물어본 것과 출국하기 전에 체온 체크를 받은 것 외에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자동 게이트를 통과해서 출국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나라타공항에 도착해 입국심사 전에 '2주 격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나라키와 아야〉

나라타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2주 격리'의 설명을 들었다. 미리 알아봤던 대로 집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지내도 되지만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된다. 나눠준 종이에 집 주소를 썼더니 공항 직원이 "어떻게 갈 겁니까?"라고 물었다. "남편이 차로 마중 나옵니다"라고 답하면 끝. 남편이 렌터카를 빌려서 마중 나와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서 죽 집에서 지냈지만, 사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격리 기간에 집 밖으로 나와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체크하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도 '방역하는 척'하는 건가 싶었다.

올림픽 연기 후 확진 급증, 한국이 더 안전

일본에 가기 전부터 한국에 돌아와도 2주 자가격리 조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일본에서 2주, 한국에서 2주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시간이 없어진다. 나라타에 도착하자마자 1주일 집에만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는 건 가능한지 물어봤다. 이것도 일본대사관에 물어봤는데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라타에 도착해서 물어봐 주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정도는 파악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라타에서 확인해 보니 "그건 상관없다. 일본에 2주 이상 있는 경우에 처음 2주는 대기해 달라는 것이 그 전에 나가는 건 괜찮다"는 답을 얻었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에서도 2주 격리 조치가 결정됐다. 일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격한 듯하지만, 전용 버스로 집까지 태워주는 등 현실적인 배려는 있었다. 코로나19사태가 타지면서 솔직히 일본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고 일단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비자 취득은 어려울 듯하다. 신청해도 보류 상태거나 아예 "못 주겠다"고

들은 일본인이 많다. 한국 집에서 대기하면서 몇 개월 집을 비워도 괜찮게 해 놓고 4월 말에 일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듯하다. 한·일 간의 입국제한이 언제 풀릴지 모른다. 집세를 비롯한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못 하게 된 것들도 많은데 그중 가장 아쉬운 건 올해 막 시작한 활동이다. 한국인 2명, 일본인 2명의 민간인 그룹 '제멋대로 한국홍보과(勝手に韓国広報課)'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한국 지방의 매력을 전달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 도쿄와 가나가와(神奈川県)에서 시작해서 4년 동안 47도도부현(都道府県) 모두 돌면서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일본 지방의 매력을 한국에 전하는 준비도 해 나갈 계획이었다.

지난 2월엔 코로나19 영향을 걱정했지만 참가를 취소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두 군데 합쳐서 90명 정도 참가했다. 우리 활동의 비용은 크라우드펀딩과 참가비로 만드는데 참가비는 2500엔(약 2만 8000원)이다. 우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미팅을 여러 번 하고, 지방 취재도 다니면서 이 행사를 준비해 왔다.

즐거은 시작이었지만 한·일 간의 왕래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4월과 6월에 열기로 했던 행사도 취소했다. 지금은 일본인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일본은 아예 못 들어간다.

지난해 수출 규제 이후 악화됐던 한·일 관계가 올해 들어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립이 심해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엔 제대로 나도 영향을 받고 있다.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지난 2월 도쿄에서 열린 '제멋대로 한국홍보과' 행사 장면. 일본에 한국 지방의 매력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다.

〈사진 나라키와 아야〉